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9일 월요일 음 12월 22일 (14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20%
20%	성산	30%
30%	고산	2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5/13°C
모레 흐림 5/11°C

구름 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2°C, 낮 최고기온은 8~10°C로 예상된다. 아직 남아있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주의해야겠다.

해뜰 07:24	달뜰 00:38
해침 18:12	달침 11:03
몰때 만조 03:38	간조 09:38

자외선지수 보통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백록담



이상민

정치부장

지난해 제주~청다오 항로 개설 허가 지연으로 제주항에 미리 배치한 크레인 비용만 지출하는 혈세 낭비가 계속되고, 또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한 공무원은 “지역 언론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제주~청다오 항로 개설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일인데, 헛을 할 거면 허가를 빨리 안 해주는 정부를 헛해야지, 왜 제주도에게 화살을 돌리나는 것이었다. 복잡한 심경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순 없었다. 정부 측 그 누구도 원하는 시기

반성할 시간

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 데 아무런 보장도 없이 덜컥 크레인 부터 갖다 놓은 건 제주도였다. 잘못이 명백한데 지역 언론이라고 그냥 제주도 편을 들라는 건 ‘눈 감고 아옹’ 해달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허가가 나와 지난해 10월 제주 최초의 국제무역 항로가 개설됐지만 이번에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청다오 선사가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약속했는데, 물동량이 턱없이 적어 2개월 만에 7억원을 지급했다. 그해 선사가 왕복 5,5회 운항했으나 한번 오갈 때마다 1억원 이상을 지출한 셈이다.

청다오 선사야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니 걱정할 게 없지만,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 도민 사회엔 근심이 쌓여갔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말 도정질문에서 “투자 없이 기대 수익은 있을 수 없다. 항로가 안정화하면 1~2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론을 달래기엔 부족했다. 이건 손해를 보면 오로지 개인이 책임지는 주식 투자가 아니다. 도민 우려를 덜려면 어느 시기엔 이 정도 수요가 있어, 이만큼 수출입이 이뤄지길, 이때쯤 순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식의 명확한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찾아볼 수 없다.

도정이 지금까지 제시한 한 해 제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전부 청다오 노선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 그저 바람뿐이다. 그래서 청다오 선사와 협정을 맺기 전에 투자 심사부터 거쳐야 했다는 지적은 더욱 빼아프게 다가온다.

투자 심사에서는 전문기관이 비용 편의(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밋빛 전망만으로 도민 사회를 달래는 것 보단 백배 천배 더 낫다.

그러나 제주도는 투자 심사 대상 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예산부서 의견에도 뭐가 그리 급한지 서둘러 협정을 맺었다. 뒤늦게 투자 심사 대상인지 판단하겠다며 부산을 떠나고 있지만 이미 배는 뜨고 말았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 어떻 게든 제주~청다오 항로를 성공시켜 소중한 도민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여야, 경제계, 시민사회, 학계를 막론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투자 없이 기대 수익은 없다”는 진부한 말로는 도민 사회에 이해를 구할 수도, 들끓는 여론을 달랠 수도 없다.

열린마당

서귀포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하세요



강주연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마음의 안정을 돋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그리고 음악을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돋는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 등이 준비돼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출산 및 영유아용품 랜탈 서비스도 눈여겨볼만하다.

또한 어르신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건강나눔안마, 어르신기능향상, 성인재활심리지원, 음악재활힐링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10일까지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 조사가 이뤄진다. 서비스마다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로 전화로 미리 문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향후 유해 수습 차질 전망

1942년 수몰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사망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宇部)시 조세이 탄광에서 지난 7일 잠수조사에 나선 50대 대만인이 사망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인 잠수사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낮은 수온 등으로 경련 증상을 보였고, 중태에 빠졌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해 수습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 모임)은 8일 조사를 중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시작됐으며, 일본인 외에 대만·태국·핀란



3일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소방대원들이 대만인 잠수사 구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인도네시아에서 온 잠수사도 참여해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전날 조사에서는 작년 8월에 이어 두개골이 발견됐으나, 이날 예상 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향후 조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이 탄광은 우베시에 있었던 해저 탄광이다. 해저에 깊도가 있어 특히 위험했고 조선인 노동자가 유독 많아 ‘조선탄광’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그린수소로 오르는 한라산 1100도로



김항기
제주도민

한라산을 향해 오르는 길, 내 차는 조용히 달린다. 나는 수소경제를 지지하는 제주 도민이다. 그래서 내 차는 수소차다. 제주에서 수소차를 타는 일상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미래를 매일 확인하는 경험이다.

제주의 수소는 다르다. 블루수소나 그레이수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다.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로 제주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가 세워졌고, 풍력으로 생산된 깨끗한 에너지로 제주를 달린다는 사실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마음을 가볍게 한다. 이제 제주의 풍력

은 해안길의 한 풍경이 되어, 제주의 바람과 사람이 함께 숨 쉬고 있다.

제주 지형은 또 하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낮은 해안에서 높은 중산간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다. 많은 차량들이 매연을 내뿜으며 힘겹게 올라가지만, 나는 조용히 달리며 순수 물(H₂O)만 배출한다. 주차장에서 냉난방을 켠 채 며칠 때도 매연 걱정이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 정정 제가 왜 그린수소를 선택했는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다.

1100도로를 오르며 제주도의 수소경제를 응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들에게 일상의 공기와 소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토대가 된다. 제주의 공기는 더 맑아지고, 탄소중립은 일상 속 선택으로 완성될 것이다. 오늘도 나는 그린수소로 달린다. 이제는 더 많은 도민이 이 조용한 변화를 함께 경험하길 바란다.

한라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 대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hallala.com>
e-mail: hl@halla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감귤모목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궁 천 3년생

·황금향·레드향·한라봉
그 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최고경력·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강정종묘 종남농장

제18-서귀포-2019-20-03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밀을 수 있는 공식업체

국내육성 품종통상실시 계약완료

다양한 연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천혜향·황금향·카라향·레드향·한라봉·하례조생·원터프린스

실품종

달코미·우리향·미래향·설향·Matt·한라봉·레드스타·하례조생·원터프린스

감귤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맷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 임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본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처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론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장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카라향·레드향·황금향·천혜향·한라봉·하례조생·원터프린스·하귤·오하라베니·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축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축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